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 미즈노 남부크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2011에 처음 사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좋아하는 형으로부터 내가 성공하길 바란다며 선물을 받은 책.  
매년 생각이 날 때 마다 한 번씩 읽는다.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자신은 절제를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다해도, 아랫사람들까지 똑같은 절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절제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더라도 자신은 세 끼 식사외에는 먹지 않는 절제의 생활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가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요.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의 뭇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 주는 일에는 일전 한푼도 쓰지 않소.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소?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니, 운명을 흥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오.

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금전에까지 손을 댄다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굽신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윗사람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하는 것이 예사요.

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 그렇게 하려면 검약하

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소.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절제를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위를 다스려야 하오.

천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모든 일에 대해 기승전 적게 먹어라라서 좀 헛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음식을 절제하는 삶이 건강을 가져오고, 건강한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에, 나이를 먹을 수록 다시한번 곱씹게 되는 내용이다.

항상 언제나 절제하고 덕을 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